

NO! 금서, YES 필독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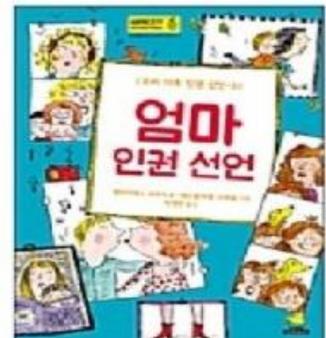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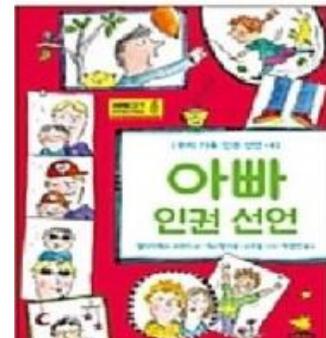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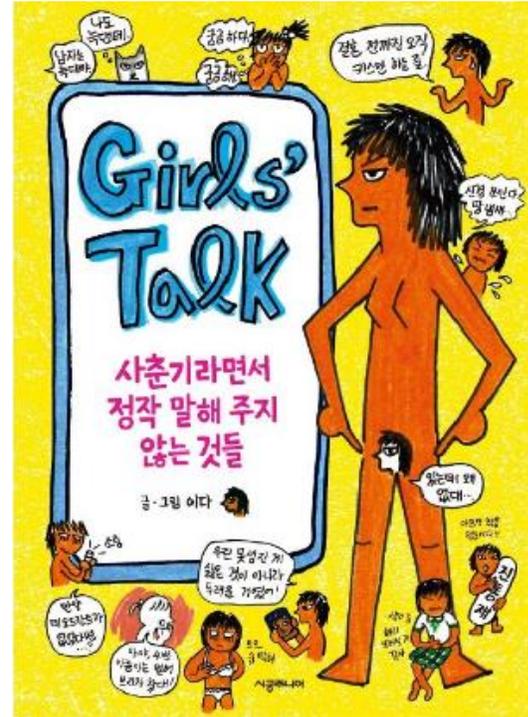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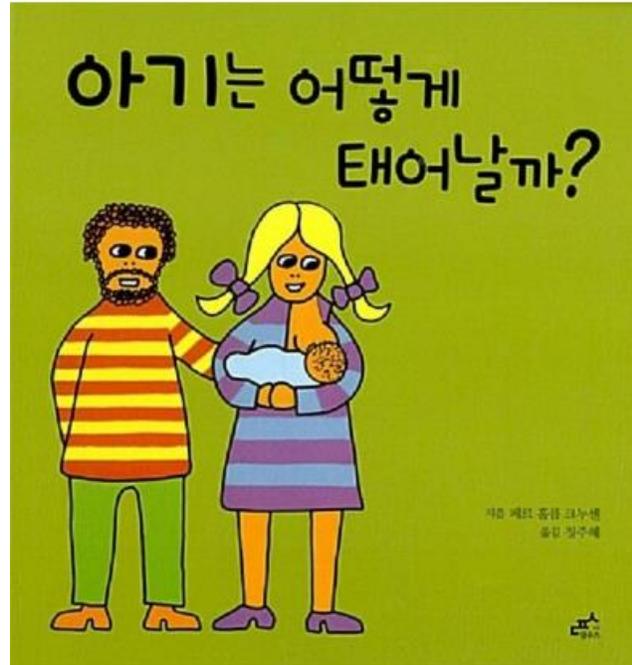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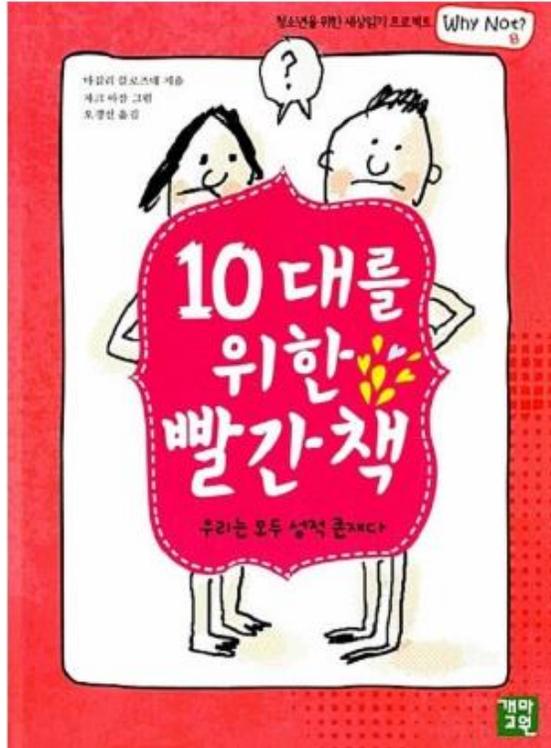
릴레이 성평등 책담회

2023. 8. 2.

정치하는엄마들 오은선

act@politicalmamas.kr

1. 대체 왜?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빼라는 거지?



1. 대체 왜?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빼라는 거지?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

어린이·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이다.

“

5~6세의 아동기부터 편견과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어린 시절의 올바른 학습과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

나다움어린이책의 선정 과정

1단계 - 어린이책을 성평등 기준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 조사

어린이책의 성인지 감수성을 연구한 국내외 주요 논문을 조사 분석했습니다. 1970년대 영미권에서 행해진 연구에서는 어린이책의 제목, 중심 인물, 그림 빈도에서 남성 인물이 압도적이고 성별 고정관념이 매우 강하게 반영됐다고 밝혔으나, 1980년대 연구부터 차츰 여성 인물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성격 묘사나 행위 양식에서 성별 고정관념이 약화되는 등 성별 불균형과 고정관념이 점진적으로 개선됐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다고 보고됐으며 다수의 국내외 연구는, 어린이가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도서를 읽거나 관련 활동을 하면 성별 고정관념이 약화되고 성평등 의식이 제고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단계 - '나다움어린이책'의 26가지 기준 질문 추출

국내외 선행 연구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어린이책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 질문들이 제시돼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로 '나다움어린이책'의 선정 기준인 '어린이책의 서사와 인물에 대한 26가지 질문'을 확정했습니다.(68쪽 표1 참조)

3단계 - 26가지 질문을 10개 범주로 분류

질문을 주제 영역에 따라 10개 범주(주체성, 몸의 이해, 일의 세계, 가족, 사회적 약자, 표현, 혐오, 사회적 인정, 안전, 연대)로 분류했습니다. 10개 범주를 다시 '나다움어린이책'이 추구하는 가치, 즉 자기공정, 다양성, 공존과 연결시켰습니다.

1. 대체 왜?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빼라는 거지?

“

우리 어린이·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어릴 때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책을 적극 개발하고, 성평등 도서 보급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나가겠다.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이미 출판돼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서를 가지고 '성에 대한 사실적인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어떤 책이 좋을까?' 등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선정했다. 200개에 달하는 도서 가운데 일부 책이 과하게 묘사돼 사업 진정성이 폄하돼 마음이 답답하다.

나다움 주관 사무국 관계자

1970년 덴마크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교재에 실린 내용인데, 50년이 지난 오늘까지 보건과 금욕 중심의 학교 성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시대에 맞지 않는 성교육을 지적해야 할 국회의원도 오히려 구시대적이며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래통합당 책들이 동성애를 미화하고 성교 자체를 재미있고 신나는 일로 표현했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

1. 대체 왜?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빼라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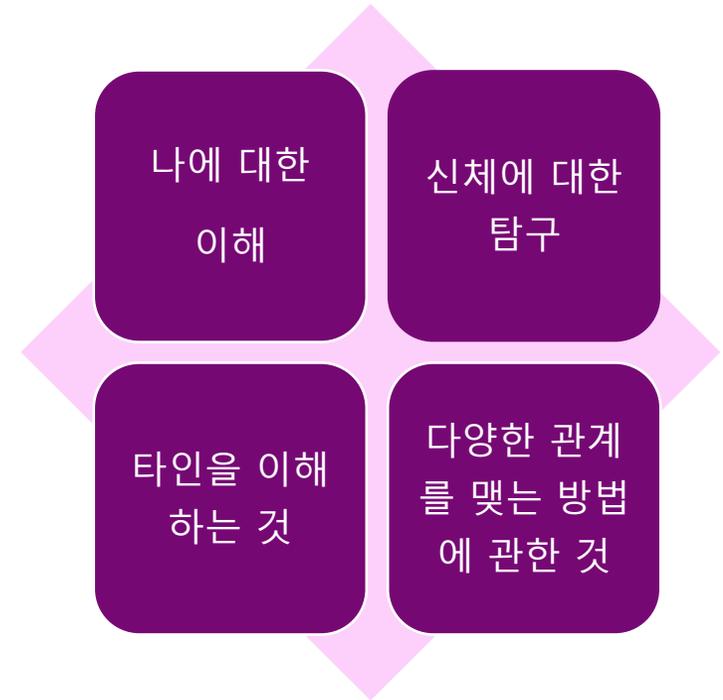
- '어른의 시선'으로 아동 성교육 도서를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 아동청소년은 '성'에 대한 근원적인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성기나 성관계를 사실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성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양육자나 교육자가 '성을 대하는 태도'

“

성교육 고전으로 유명한 '배빗콜'작가의 <엄마가 알을 낳았대> 라는 동화책에도 성관계 장면이 나온다. 7,8,9세 등에게 읽어줬을 때, 어린 아이들은 편견 없이 받아들였다. 오히려 성기나 성에 관한 사전지식이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읽어줬을 때 더 부끄러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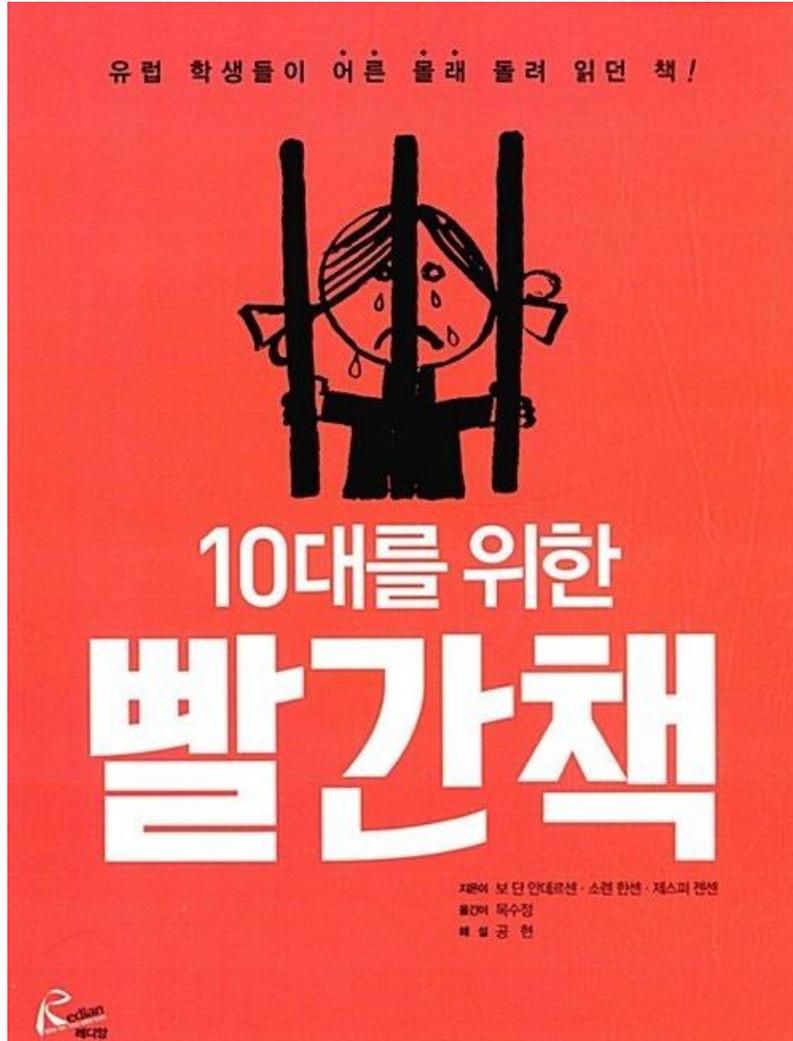
이은숙 어린이도서연구회 목록위원장

”



Q.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은 무엇일까?

2. 대체 왜??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배라는거지?



어른들의 말이라고 무조건 복종하지 말라!

『10대를 위한 빨간책』은 고등학교 교사 두 명과 심리학자가 함께 쓴 책으로 68혁명 열기가 채 식기 전인 1969년 덴마크에서 출간되어 유럽에 파문을 일으켰다. 영국 정부는 이 책을 몰수했으며, 출판사는 이에 맞서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했으나 패했고 그리스 출판사 관계자는 이 책을 내고 감옥에 갔다. 이러한 파문 속에서도 이 책은 68혁명이 그랬던 것처럼 덴마크 밖으로 번져 나갔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 그대로 따르지 말고, 학생들이 스스로 힘을 조직해 저항하라는 것이다.

2. 대체 왜??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배라는거지? - 서울학생인권조례

2011년 5월 10일

서울시민 8만 5천명의
서명으로 발의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 공포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
2012.1.26., 제정]

[시행 2021. 3. 25.]

[서울특별시조례 제7888호, 2
021. 3.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체 왜??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배라는거지?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 학교민주성 진일보
-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
- 어린이·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자존감 성장에 큰 역할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2. 대체 왜??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배라는거지?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2. 대체 왜??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배라는거지?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2. 대체 왜??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배라는거지? - 차별금지법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좌초

성소수자 차별금지가 인권헌장에 담기면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곤란해진다는 이유



2017년 대선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유력 후보들 중 차별금지법을 수용하겠다고 명백하게 밝힌 후보는 없었음.

2. 대체 왜??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배라는거지? -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사회적 소수자 문제는 다수결로 해결할 수 없음

그래서 기본권이 중요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다수결에 대한 제한이 필수불가결

인권에 대한 기본권

어떤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든 기본권이 원칙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

the public

- 공유할 수 있는 공공사가 있다고 믿으며 공유된 세계를 짓기 위해 같이 행동하는 집단
- 중요한 공공사에 스스로 참여
- 의사결정과정에 나타남
- '시민형성 프로젝트'
- 행동하는 사람들
-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권력을 만들어가는 존재

한나 아렌트에게 인간답다는 것은 생존의 게임, 즉 야수성에서 벗어나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간다는 것

정치적 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며 동료시민들과 '공유된 세계'를 만드는 것이 인간다움의 절정

인간다움 = 정치적 인간이 되는 것

정치적 인간을 만드는 조건 = 자유+평등

Q. 아동청소년에게 인간다움이란?